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방부



정치권의 물갈이! 아직 선거는 멀었어
도 작금의 여러 가지 사회현상, 정치현상,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 줄 책
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면 차곡차곡
물갈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가장 먼저 뛰어나오는 용어가 '정치권 물갈이론'이다.
한국의 발전과 미래, 또 현재에도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정치, 정치인, 광범위하게 정치권이라고 지적되기 때문인 것 같다.

'정치권 물갈이론' 가운데 8~10년 전에 '젊은 피'라고 하는 용어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소위 386세대(30대, 80학번, 60년도 출생)가 각광을 받았던 때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결국 386세대로 통틀어 '젊은 피' 수혈은 실망 또는 실패라는 용어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젊은 피'. 이 용어는 이제는 노화된 용어가, 실패한 용어가 돼 버렸지만 아직도

사회와 각 구석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심심찮게 등장한다. 때로는 '젊은 피'에 빗대어 어떤 사람은 '젊은 피'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정치권 물갈이

젊은 피든 젊은 피든 '피'라는 말에서는 생명이 연상되고 종교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는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한다는 것도 이 연상과 무관하지 않다. 왜 그리스도의 피만 구원할 수 있었을까? 죄인의 피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교리'다.

썩을 대로 썩고 낡을 대로 낡은 우리나라 정치를 희생시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

다. 젊은 피 하면 대표격이 386세대가 떠오르는데, 386세대 스스로가 '젊은 피'라 여기고 있었다.

피는 혈장과 혈구로 되어 있다. 피는 늙은 피가 젊은 피로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혈구는 자연적인 수명이 있어 그 수명이 다하면 죽고 새로운 혈구가 생성된다. 때문에 우리 몸속의 피는 항상 새롭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수혈이 따로 필요 없다. 하지만 갑자기 출혈을 많이 한 경우는 수혈이 필요하다.

아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어떤 혈액형인지 파악한 다음 수혈할 피가 에이즈나 간염, 성병에 감염되었는지 검사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나쁜 피는 뽑아내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넣어주는 것이 이상적인 교환수혈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의 정치권이 교환수혈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또 새로운 피로 투입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제는 실패의 대명사라고 지목되는 '젊은 피'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가 가장 적합하다는 원칙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교육,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한분필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삼켜온 사람들을 말한다. 나이가 젊어서 젊은 피가 아니라 나아이에 관계없이 젊잖게 살아온 젊잖은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천의과대학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쓰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현주



최근 OECD 사회노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여성 1명의 가임기 간 출생아 수는 평균 1.19명으로, OECD평균인 1.64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시대의 산모들은 인터넷과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의 참여 속에 안정된 분위기에서 분만이 진행돼 자연 분만율을 높이고 가족의 축제 속에 한 생명의 탄생을 환영할 수 있다.

가족 분만은 진통이 시작되고부터 출산이 끝날 때까지 남편이 옆에서 지켜 볼 수 있어서 산모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분만 시 태아의 탯줄도 직접 자를 수 있으며, 회복까지 한 침대에서 이뤄지는 이상적인 분만법 중 하나로 꼽힌다.

‘탄생의 축복’ 함께하는 가족분만 늘리자

정보 매체의 발달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만 자체가 산모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 가족 전체의 축제가 되고 있으며, 아이의 인권도 보호하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가족분만법이 각광을 받는 추세다.

예전에는 분만하려 온 아내를 진통실로 들여보내고, 복도 끝에서 밤을 통제하는 모양새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인 남편의 모습이었다. 산모는 분만실에서 출고 고통에 시달리고 그저 여자의 업보려니 생각하며 분만하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아 아니다. 더군다나 산모들은 분만 대기실에 줄줄이 누운 채 옆자리 산모가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다가올 분만의 고통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분만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기준의 시설과는 달리 분만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분만시설을 제공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가족 분만실은 개인에게 분만실이 별도로 제공되며 때문에 산모의

더불어 개인 분만실이 제공되므로 일명 인권 분만으로 불리는 브레이브에 분만 등을 접목할 경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생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쾌락이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의 환경을 자궁내 환경과 맞추어 아기의 고통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분만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작게 해야 하며, 분만실을 가능한 한 어둡게 하고,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기 전에 엄마 위에 잡시 옮겨놓아 아기의 안정을 취하게 한다. 분만실에 아기 육조를 준비해 엄마의 자궁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불과 10년 전에 비하면 분만 환경이 급속히 개선된 것이지만, 앞으로 더 향상된 분만법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 개인과 태어나는 아이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노력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다소나마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아이와 산모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문화여성병원 원장〉

지하철 ‘유실물’ 이렇게 하면 쉽게 찾는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실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승객들이 자신의 유실물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유실물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적고자 한다.

첫째 각 차량에 표시된 고유의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면 역무원이 신속하게 승차하여 빨리 유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승차시에 흡기박스에 적힌 출입문 승차위치를 기억한다.

예를 들어 흡기박스에 ‘4-1’이라고 적혀 있다면 네 번째 객차의 첫 번째 출입문 위치를 나타낸다.

셋째 열차번호를 기억한다. 기자가 있는 소태쪽으로 움직이는 전동차는 열차번호의

끝번호가 짧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1224열차라면 평동에서 소태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행열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제1225열차라면 소태에서 평동으로 운행하는 하행열차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유실물 발생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승하차한 차량번호를 역이나 종합관제실에 통보만 된다면 소중하고 귀중한 유실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만약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정확하고 침착하게 역이나 종합관제실에 “어디 어디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몇시 몇분에 탔는데 차량번호 몇 번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승덕선·광주도시철도공사 종합관제실

요즘 인권(人權)이라는 말을 흔히 접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19세 미만의 소년, 여성, 노약자 등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밤 늦게 지구대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만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다. 경찰도 때리거나 함부로 대할수 없어 분통터지는 속을 살피며 달래느라 업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인권이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보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파출소서 행패 부리는 만취자, 엄중 처벌해야

있는 곳이 경찰서 지구대다. 지구대에 신고되는 사건 사고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국가 치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구대에서 이같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하며 이로인해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 입건시켜야 한다.

진정으로 인권이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보호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쌍촌동

시설

‘형제 경영’ 막 내린 금호 경영공백 없어야

호남 대표기업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그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 부문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동반 퇴진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지역민의 성원 속에 성장해온 금호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형제간 불화까지 겹쳐 참으로 안타깝다.

박삼구 회장은 28일 박찬구 회장이 형제간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이 최근 그룹의 실질적 자주회사인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크게 늘려 형제간 균등 지분 원칙을 깨다는 것이다. 박삼구 회장 자신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했다. 이로써 1984년 고 박인천 창업주 사후 25년 동안 이어온 금호의 ‘형제 경영’ 전통은 막을 내렸다.

금호그룹은 1946년 4월 7일 고 박인천 회장이 17만원의 자본금으로 미국산 중고택시 두 대를 사들여 설립한 광주 택시가 모태가 돼 오늘날 세계 8위의 그

석면 검출된 학교 건물 안전대책 서둘러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천158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천128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특히 광주에선 조사 대상인 초(3곳)·중(3곳)·고(3), 특수학교(1) 등 10곳에서, 전남은 초(12), 중(7), 고(4) 등 23개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 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으로 폐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흉마질환이나 폐암, 악성종괴증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이처럼 무서운 물질이 성장기 아이들이 활동하는 학교에서 검출됐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연말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밀봉 및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 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성분으로 폐에 흡입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흉마질환이나 폐암, 악성종괴증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이처럼 무서운 물질이 성장기 아이들이 활동하는 학교에서 검출됐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있는 곳에 진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방 그 자체도 훌륭한 사업화 기술이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 해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시장을 재해로 끌고 가는 사업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석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13개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과 조항 등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無等鼓

호흡감스럽기조차 한 일본사회사. 매년 연말 발표되는 ‘유행어 대상’만 떠올려도, 그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해에는 미친 전후의 싱글여성을 뜻하는 ‘아리포’와 맥주·안주가 비치된 공무원 전용 뇌물전달서 ‘이자카야 택시’ 등이 대상에 뽑혔다.

연말이 아직 먼데 올해의 대상은 이미 결정된 분위기다. 지난해 ‘흔활시대’라는 책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 ‘곤카쓰(婚活·생활·운동)’가 올해 벽두부터 일본열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 다.

‘곤카쓰’는 ‘계혼카쓰도(結婚活動·결혼활동)’의 준말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활동(就活·수카쓰)에 나서듯 준비하고 노력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그러나 유행어보다 이와 관련된 상술들이 쏟아지고 있어 눈여겨 볼 만하다. 흔활바(Bar)에 이어 흔활전문 부처관리실, 야구장의 흔활 전용석 등이 순발령 있게 등장했다.

‘흔활용 브레이저’도 그중 하나다. 화시장개척에 고심하는 지역기업이나 자자체라면 한 번쯤 되어겨울 만한 메커니즘 아닌가.

/이종태 사회 2부장 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舉事長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18)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문화체육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5 (F A X 02-773-933